

# 최형우 홈런 '펑펑' '4번 타자'가 돌아왔다

KIA, 삼성에 8-7 승리

임창용, 승리의 마침표



'4번 타자' 최형우가 시즌 첫 멀티 홈런으로 포효했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대구-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5차전에서 8-7승리를 거뒀다. 슬럼프에 빠져있던 최형우가 승리의 주인공이었다. 지난달 11일 한화원정 이후 한 달여 가장 손맛을 보지 못했던 최형우가 0-1로 뒤진 3회 2사 1·2루에서 침묵을 깨는 홈런을 터뜨렸다. 이날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삼성 선발 김대우의 120km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역전 스리런을 날렸다. 최형우는 5회에는 2루수 맞고 중견수 방향으로 향했고 그사이 2루까지 질주하면서 2루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깨어난 최형우의 '한방 본능'은 7회 4번째 타석에서 다시 발휘됐다. 이번에도 영양가 만점의 홈런이었다. KIA가 3회초 나온 최형우 홈런으로 3-1리드를 만들었지만 이어진 3회말 헛타가 대거 6실점을 하면서 순식간에 3-7로 승부가 뒤집혔다. 이후 안치홍의 투런과 이명기의 적시타로 6-7까지 따라잡은 7회 1사에서 최형우가 등장했다. 슬라이더가 다시 최형우의 먹잇감이 됐다.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최형우의 슬라이더를 공략한 최형우는 이번에는 밀어서 슬쩍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최형우가 타선을 이끌자 불펜이 힘을 냈다. 선발 헛타가 3이닝 9피안타 1볼넷 2탈삼진 7실점(6자책)으로 물러나면서 4회부터 불펜이 일찍 가동됐다. 유승철이 볼넷과 몸에 맞는 볼을 하나씩 기록했지만 탈삼진 2개를 수확하는 등 1.2이닝을 실점 없이 막았고, 5회 2사부터는 김윤동이 책임졌다. 김윤동은 8회까지 3.1이닝을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지켜내면서 재역전극의 발판을 놓았다. 7-7로 맞선 8회 2사 3루에서 나온 베나디나의 적시타로 8-7을 만든 KIA는 '말행' 임창용으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연 많은 극적인 세이브였다. 첫 타자 러프의 타구를 3루 땅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3루수 정성훈의 송구 실책이 나왔다. 배영섭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박한이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임창용이 대타 강민호와 맞섰다. 6구 승부 끝에 좌익수 플라이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든 임창용은 강한올드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세이브는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로 기록됐다. 앞선 기록은 지난 2016년 4월 12일 KIA 최영필이 SK전에서 기록한 41세 10개월 30일. 임창용은 41세 11개월 9일에 세이브를 추가하면서 KBO리그 또 다른 족적을 남겼다. 승리의 주역이 된 최형우는 "지난 경기에서 무너진 폼이 잡히는 느낌이었다. 오늘 경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다. 첫 타석에서 플라이로 잡히는 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홈런을 못 친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타점이 아쉬웠다. 보여줘야 하는데 우울하게 아웃 됐었다. 팀이 이겨서 정말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임창용이 13일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 9회말 마운드에 올라 역투하고 있다.



13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7회초 1사에서 KIA 최형우가 솔로 홈런을 치고 있다.

##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 바꾼 임창용 "세이브 어렵네요"

## 홈런 2방에 모처럼 웃은 최형우 "아직 모르지만 느낌은 좋다"

### 덕아웃 T 특독

▲잡고 나니가 출가분해서 = 1400탈삼진 고지에 오른 KIA 최고참 임창용의 소감은 "출가분하다"였다. 임창용은 지난 10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5-4로 쏜 8회 1사 1·3루에서 마운드에 올라 양의지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통산 7번째 1400탈삼진의 주인공이 됐다. 올 시즌 1390개의 탈삼진에서 시작했던 그는 14경기 출전 끝에 의미 있는 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중요한 순간 1400개에 부족했던 하나를 채웠던 임창용은 이날 연장 10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이후 4개의 탈삼진을 추가했다. 또 두산과의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오재원에 동점포는 내줬지만 2.2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연장 11회 6-5, 끝내기 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13일 삼성과의 경기 전 "기록이 있으니까 삼진을 잡고 싶어서 막 들어가기도 했다"며 웃은 임창용은 "(1400번째 탈삼진을) 잡고 나니가 출가분해서 더 편하게 삼진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세이브 어렵네요 =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을 바꾼 임창용은 "세이브

가 어렵다"며 웃었다. 임창용은 13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8-7로 앞선 9회 등판해 볼넷을 하나 내주기는 했지만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최영필이 가지고 있던 최고령 기록을 41세 11개월 10일로 갈아치웠다. 경기 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다"며 "야구를 계속할 것이니까 세이브 하나가 목표는 아니다. 한 일 통산 400세이브에 육심한다"고 웃었던 임창용은 바로 이날 경기에서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임창용은 야수 실책 등으로 2사 2·3루까지 풀렸지만 침착하게 1점을 지키며 세이브를 올렸다. 세이브 공을 쟁긴 임창용은 "이걸 기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록이니나 소중히 간직하겠다. 이제 하루하루가 기록이 된다. (김)세현이 올라올 때까지 뒷문 잘 지키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반성했어요 = 잊을 수 없는 1주일을 보낸 투수 황인준이다. 지난 2015년 한양대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황인준은 지난 5일 NC홈경기 통해서 4년 만에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선발 한승혁이 일찍 무너졌던 9일 두산전에서는 3이닝을 소화했던 그는 나지완이 최형우를 대신해 좌익수로 들어가면서 지명타자 자리가 소멸, 타석에도 들어섰다. 11일 삼성전에서

는 러프에게 생애 첫 피홈런도 기록하는 등 사연 많은 1주일을 보냈다. 황인준은 "맞더라도 자신 있게 빠르게 던지자는 생각이다. 두산전에서는 게임 상황도 상황이 고 타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쉽게 이닝이 넘어갔던 것 같다"며 "삼성전에서는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맞았다. 홈런을 맞는 장면을 나중에 다시 보니까 커브가 한복판으로 갔다. 생각 없이 던졌다는 생각을 하며 반성했다"고 웃었다. 또 "엇그제 경기장에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고 묻는 팬이 계셨다. 더 야구를 잘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켜봐야 한다고 해주세요 = 모처럼 웃은 4번 타자 최형우였다. 슬럼프에 빠져 있던 최형우는 13일 역전 스리런에 이어 동점 홈런을 터트리면서 모처럼 4번 타자 역할을 했다. 찬스에서 허무하게 물러나면서 고민이 많았던 최형우는 "슬럼프 기간 동안 별의별 것을 다해봤다. (두 번째 홈런의 경우) 땅볼이나 스윙을 했을 뿐인데 잘 때렸다"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완벽하게 폼을 찾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형우는 "아니 지켜봐야 한다고 써주세요. 아직 모른다"며 웃은 뒤 "느낌은 괜찮다"고 언급했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 김은향 도핑 적발...극소량에 출전 허용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일원인 북한 김은향이 올림픽 기간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은향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 약물인 극소량인 데다가 고의로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라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의 판단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은향을 제재하지 않은 CAS의 결정에 WADA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인사이드더게임즈는 김은향의 몸에선 이노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가

검출했다. IIHF는 김은향이 이를 고의로 복용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CAS는 이를 받아 들여 김은향을 징계하지 않고 그가 계속 평창올림픽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했다. 올림픽 직전 경기의 약물 검사에서 김은향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인 1mm당 200 나노그램인 WADA의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1mm당 3나노그램으로 극소량이다. /연합뉴스

## 정현 발 부상

### ATP 이탈리아 오픈 불참



정현(21위·한국 체대·사진)이 발 부상으로 남치프 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487만2105 유로)에 불참한다.

이탈리아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현과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카(14위·스페인), 닉 키리오스(23위·호주), 밀로시 라오니치(24위·캐나다), 안드레이 루블레프(31위·러시아) 등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정현의 부상 부위에 대해서는 발이라고 표기했다. 정현은 지난달 바르셀로나오픈에 출전하려다가 발목 부상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 대회였던 BMW 오픈에서 4강까지 오르며 건재를 과시하는 듯했으나 지난주 마드리드오픈에서는 또 1회전에서 탈락하는 난조를 보였다. 정현은 마드리드오픈 1회전에서 로빈 하세(44위·네덜란드)에게 0-2(2-6 0-6)로 완패했다. 1세트 게임스코어 2-2 이후로는 10게임을 연달아 내주는 무기력한 패배였다. 정현은 이탈리아 대회가 끝난 뒤인 20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리옹 오픈(총상금 50만1345 유로)에도 출전할 예정이나 몸 상태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게 됐다. 27일에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 /연합뉴스



5·18 전국 태권도 13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5·18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중등부 플라이급에 출전한 김영대(홍·삼일중)가 현정민(청·오현중)의 머리를 공격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